

GREENPEACE



WINTER 2014

IMPACT REPORT

그린피스를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3년 전 가을, 처음 문을 연 서울 사무소는 아직 그린피스 동아시아의 막내이지만 여러분의 성원 덕분에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마리오 다마토(Mario Damato)
그린피스 동아시아 지부 대표

후원자 여러분, 우리들의 지구를 위해 그린피스 캠페인을 후원해 주셔서 매우 감사드립니다. 2011년 가을 개소한 서울 사무소는 동아시아 지부 중에서는 막내이지만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 간 직원 수는 2배로 증가했고, 다양한 국내 캠페인을 시작했으며, 여러분과 더 많이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서울 사무소의 매우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개소 이후 꾸준히 진행해 온 탈핵, 재생가능에너지, 불법어업 반대 캠페인 등을 더욱 본격화하는 동시에 새로운 캠페인을 시도했습니다. 브라질 월드컵 때에는 '축구 디독스 캠페인'을 통해 스포츠 용품에 함유된 독성물질 제거를 요구했고, 레고에는 북극에서 무분별하게 원유를 시추하는 쉘(Shell)과의 파트너십을 끊고 북극 보호에 앞장설 것을 요구했습니다. '레고 캠페인'의 경우, 전 세계 1백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동참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 냈습니다. 또 지난 해부터 진행한 탈핵 캠페인의 결과로 한국의 방재계획이 개선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덕분에, 8~10km에 불과하던 기존의 방사선 비상 계획구역이 30km로 확대됐습니다.

하지만 그린피스가 해야 할 일이 여전히 많습니다. 쉘은 여전히 북극에서의 원유 시추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가 불법어업 근절을 위해 원양수산발전법을 제대로 개혁하는지도 지켜보아야 합니다. 아울러 그린피스는 여러분이 더욱 관심 갖고 계신 환경 문제들에도 주의를 기울여, 내년에 곧 새롭고 혁신적인 캠페인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여러분이 꾸준히 관심을 가져 주신다면, 그린피스는 보다 멋진 결과를 보여 드릴 것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후원에 감사드리며, 2015년에도 그린피스와 함께 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따뜻한 연말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린피스를 소개합니다!

1971년 캐나다 밴쿠버에서 몇몇의 활동가를 실은 작은 배가 출항했습니다. 작은 섬 암치트카(Amchitka)에서 벌어지는 미국의 핵실험을 저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린피스의 시작입니다. 실패로 보였던 이들의 첫 시도는 캐나다 사회에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고, 이듬해 결국 핵실험은 중단되었습니다. '개인의 평화적 행동이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신념 하에 설립된 그린피스는 세계 최고의 환경단체로 발전했습니다.

그린피스는 '독립적인' 캠페인 단체입니다. 정부와 기업으로부터 그 어떤 후원도 받지 않기에 정치적, 상업적 이해관계에 구애받지 않고 환경 문제에 매진할 수 있습니다. 오로지 개인 후원자와 독립 재단만을 재정 원천으로 하는 그린피스는 독립성과 순수성을 훼손할 수 있는 그 어떤 후원도 구하거나 받지 않습니다.

전 세계 40여 개 국가에 위치한 그린피스는 기후변화 저지, 해양 보호, 독성물질 제거, 삼림 보호 등의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현재 그린피스는 전 세계 약 3백만 명의 서포터들과 함께 하며, 비폭력적인 방식으로 전 지구적 환경 문제를 폭로하는 한편 푸른 미래를 위한 해결책을 마련하는데 힘쓰고 있습니다.

1971년 9월 15일 밴쿠버에서 출발한 그린피스의 최초 항해 사진 © Greenpeace / Robert Keziere



cover story

세계 최대의 산호초 지역인 호주 북동부 그레이트 배리어 산호초 바다 속의 출전경이 무리. 이 바다는 이미 해양 산성화와 수온 상승과 같은 기후변화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 Darren Jew / Greenpeace

목 차

- 02 감사 말씀
- 03 그린피스 소개
- 04 그린피스의 활동 방식 IDEAL
- 05 후원금 사용 내역과 캠페인 하이라이트
- 06 국내 소식
- 07 해외 소식
- 08 해양 보호 캠페인
- 12 기후에너지 캠페인
- 14 북극 보호 캠페인
- 16 삼림 보호 캠페인
- 18 평창 생물다양성협약 총회 소식
- 19 연말정산 안내
- 20 그린피스 거리모금팀 소개
- 22 그린피스 후원자 이야기
- 23 후원자의 밤과 새해 인사

임팩트 리포트 2014 겨울호(통권 2호)

발행일 2014년 12월 5일
발행처 재단법인 그린피스
전화 02)3144-1997
주소 서울시 마포구 와우산로 21길 20-11 2층
디자인 및 인쇄 (주)인디엔피 www.indnp.com

그린피스의 활동 방식 IDEAL

그린피스의 캠페인 활동 방식을 'IDEAL' 이라고 합니다. 그린피스는 환경 파괴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조사하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수많은 사람들에게 폭로하여, 경각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아울러 환경 문제의 해결을 위해 비폭력적이고 직접적인 방식으로 행동하며, 정부와 기업 등의 이해관계자와 대화합니다.



부산 광안대교 위에서 원전 반대 고공 시위 중인 그린피스 활동가

IDEAL과 그 사례



Investigate 조사

그린피스는 독성물질 제거를 요구하는 '디톡스(Detox) 캠페인'을 위해 중국에 있는 의류 브랜드 공장에서 버리는 폐수를 직접 조사했습니다. 과학적인 조사는 그린피스 캠페인의 기초가 됩니다.



Document 기록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그린피스는 꾸준히 현장을 방문하여 구체적인 상황과 증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린피스는 기록으로 '증언을 하는' 환경단체입니다.



Expose 폭로

그린피스는 P&G의 생활용품이 어떻게 삼림을 파괴하고 있는지를 폭로했습니다. 이렇게 감춰진 진실을 드러낸 결과, P&G는 결국 삼림을 파괴하는 공급망과 거래를 끊었습니다.



Act 행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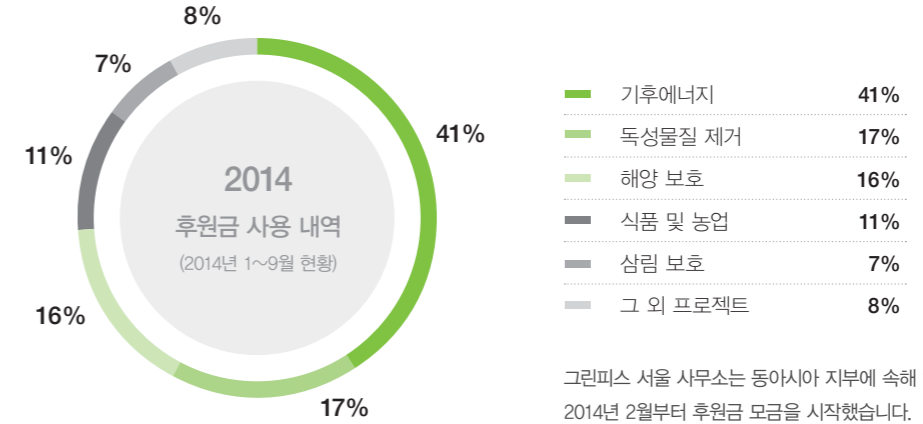
지난해 여름, 그린피스는 부산의 광안대교에서 원전 위험을 경고하고 방재계획 개선을 요구하는 비폭력 직접 행동(Non-Violent Direct Action)을 펼쳤습니다. 이후, 부산시는 원전 사고와 관련하여 부실한 국내 방재계획에 대해 그린피스와 논의하는 자리를 바로 마련했습니다.



Lobby 로비

최근 그린피스 대표단은 반기문 UN사무총장을 직접 만나 북극 문제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처럼, 그린피스는 정부 및 기업과 대화를 통해 환경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2014년 그린피스 동아시아 지부 후원금 사용 내역



최근 캠페인 하이라이트



기후에너지 캠페인

올해 10월, 레고가 50년간 유지해 온 셸(Shell)과의 파트너십을 끝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레고의 이러한 결정은 '레고 캠페인'에 참여한 전 세계 1백만 명의 서명이 있기에 가능했습니다. 지난 7월부터 시작한 레고 캠페인은 레고에 셸과의 파트너십을 청산하고, 북극 보호에 앞장설 것을 요구했습니다.

지난 10월 17일, 한빛 원전 3호기가 정지되었습니다. 이는 신고리 1호기가 가동 중단된 지 불과 7일만이고, 올해 들어 벌써 6번째 원전 가동 중지였습니다. 그린피스 활동가들은 사고 다음날인 18일, 전라남도 영광군에 위치한 한빛 원전 앞에서 배너 액션을 펼치며 위험천만한 원전을 규탄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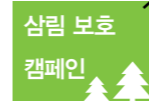
10월 초, 그린피스 대만 사무소는 정보통신기술 업계가 재생가능에너지 사용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그로부터 13일 후, 구글이 대만에서 재생가능에너지 사용을 늘리기 위해 투자를 확인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더 많은 재생가능에너지 사용을 위해 구글은 대만 산업국 및 대만전력공사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해양 보호 캠페인

지난 11월 19일, 그린피스 활동가들은 부산 감천항에서 불법어업선 인성 3호의 프로펠러에 사슬을 감아 출항을 물리적으로 저지하고, '국격추락=30일?'이라는 메시지를 들어 보이는 해양 액션을 실시했습니다. 그린피스는 이번 액션을 통해, 불법어업으로 국격을 실추시킨 인성 3호에 대한 송방망이 처벌과 부실한 원양어업 관리감독체계를 규탄했습니다.

10월 초에도 그린피스는 불법어업선 인성 3호에 'illegal(불법어업) 그만!'이라고 페인트칠하는 액션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인성 3호의 불법어업을 고발하고, 해양수산부에 조속한 원양수산발전법 개혁을 촉구했습니다.



삼림 보호 캠페인

지난 4월, APP(Asia Pulp & Paper)는 1백만 헥타르(ha)의 열대우림을 복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는 10년 동안 그린피스가 APP를 대상으로 펼친 삼림 보호 캠페인의 결과입니다. APP는 과거에 펄프 생산을 위해 인도네시아 열대우림을 파괴하며, 수마트라 호랑이와 코끼리 등 그 곳의 생태계도 위협했습니다. 현재 그린피스의 캠페이너들은 APP가 발표대로 삼림 보호 활동을 하고 있는지 감시하고 있습니다.

그린피스 국내 소식

위험천만한 도박, 한빛 원전

지난 10월 18일, 그린피스 활동가들은 전라남도 영광군에 위치한 한빛 원전 앞에서 배너 액션을 펼쳤습니다. 그 전날인 17일 새벽, 한빛 원전 3호기가 또 다시 정지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신고리 1호기가 가동 중단된 지 불과 7일 만이고, 올해 들어 벌써 6번째 가동 중지 사태입니다. 이번에 한빛 원전이 정지된 것은 증기발생기 내 가나듐 관에 생긴 균열로 냉각수가 유출되어 방사능 수치가 급격히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한빛 원전은 지난 9월에도 30년 동안 영터리 설계 도면으로 안전 점검을 해 온 것이 밝혀지면서 국민들의 분노를 산 바로 그 원전입니다.



한빛 원전 앞에서 원전 사고의 위험을 알리는 액션 중인 그린피스 활동가



채 낚기 방식으로 참치를 잡는 몰디브의 어부들 © Paul Hilton / Greenpeace

드디어 착한 참치가 나왔습니다!

11월 초, 우리나라 최초의 '착한 참치'가 출시되었습니다. 이 참치캔은 채 낚기(Pole and line) 어획 방식으로 잡은 참치로 만들어졌습니다. 채 낚기 방법은 집어장치(FAD)나 그물을 사용하지 않고, 낚싯대로 가다랑어를 한 마리씩 낚아 올리는 방식입니다. 이는 소규모로 목표종만 잡기 때문에 집어장치의 가장 심각한 문제인 혼획을 피할 수 있어, 해양 생태계를 파괴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잡은 참치로 만들어진 제품이 출시될 수 있도록, 그린피스는 지난 2012년부터 참치캔 지속가능성을 비교하는 보고서를 발표하는 등 착한 참치 캠페인을 펼쳐 왔습니다.

훈훈했던, 후원자의 밤

지난 11월 14일, 그린피스 서울 사무소는 처음으로 '후원자의 밤' 행사를 가졌습니다. 지난 2011년 가을에 서울 사무소가 개소한 이후 후원자 여러분과 함께 하는 첫 자리인 만큼, 매우 설레고 떨리는 만남이었습니다.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후원자들은 그린피스를 위해 여러 목소리를 내주셨습니다. 그린피스는 후원자 한 분 한 분이 전해 주신 울림을 잊지 않고, 캠페인 활동에 매진하겠습니다. 바쁜 와중에 행사에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 주신 후원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3쪽에서 '후원자의 밤'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세요.



제1회 후원자의 밤 행사에 오신 후원자분들과의 단체 사진 © Ian Lee / Greenpeace



그린피스 환경감시선 '북극의 일출호' 선원들이 그린피스 지지자들에게 보내는 감사의 메시지 © Naomi Harris / Greenpeace

서울 사무소 페이스북 페이지, 좋아요!

여러분의 좋아요를 땀뭍 받고, 댓글 하나에 신나하고, 공유한 사람을 궁금해하며 그린피스 서울 사무소의 페이스북 페이지는 성장해 왔습니다. 서울 사무소가 개소한 2011년 페이스북 페이지의 시작은 미미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덕분에, 올해 초만 해도 5,783명에 그쳤던 페이스북 팬이 지금은 78,22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1년 만에 무려 13배나 많은 분들이 저희 페이지를 성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린피스의 활동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아진 만큼, 서울 사무소는 보다 다양한 소식으로 풍성한 페이스북 페이지를 선사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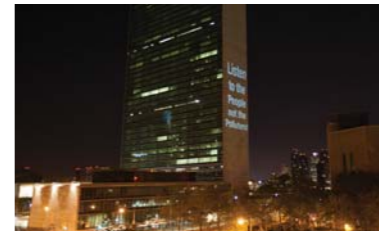
그린피스 해외 소식

전기를 자급자족하는 다나미 마을

한국에선 누구나 자유롭게 전기를 사용하는 지금, 인도의 3억 명은 아직도 전기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 7월, 인도의 다나미(Dharmi) 마을은 전기를 자급자족하는 마을이 되었습니다. 이는 그린피스와 파트너인 바시스(BASIX), 씨드(CEED)가 400가구와 50개의 상업시설의 사용 전력량에 해당하는 태양 에너지 100킬로와트(kW)를 공급하기 시작하면서 가능해졌습니다. 이 마을의 전기 부족은 농작물의 관개시설 유지에 큰 장애물이었습니다. 이제 태양에너지 공급으로 인해, 농부들은 농작물을 좀 더 수월하게 재배하게 되었습니다.



인도 다나미 마을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 아래에 앉아 있는 소년들 © Vivek M. / Greenpeace



2014년 9월 뉴욕에서 개최된 UN 기후정상회의장 건물 밖에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라'라고 전한 프로젝트 액션 © Greenpeace

세계 시민들의 환경 보호 염원을 전달한 액션

그린피스 활동가들은 UN 건물에 "환경 파괴자 대신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Listen to the People, Not the Polluters)"라는 메시지를 빗으로 투사했습니다. 이번 액션은 미국 뉴욕시에서 수만 명의 사람들이 기후 변화 해결을 요구했던 행진 이후에 진행되었습니다. 지난 9월 23일의 UN기후정상회의에서 전 세계 지도자들이 세계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기후변화 해결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하는 취지였습니다. 메시지는 영어뿐만 아니라 스페인어, 러시아어 등 다른 언어로도 전달되었습니다.

취소된 타르 샌드 프로젝트

지난 9월, 노르웨이 석유기업인 스타토일(Statoil)이 수백억 달러를 투자한 타르 샌드(tar sands) 프로젝트를 취소했습니다. '타르 샌드'는 지표에 고체 혹은 반고체 상태로 노출되어 있는데, 이를 모아 열처리를 통해 정제하면 비중이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은 원유를 추출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그린피스 캐나다 사무소는 캐나다 앨버타주에 집중적으로 분포된 타르 샌드와 관련된 사업을 중단할 것을 요구해 왔습니다. 타르 샌드를 채취하기 위해 그 지역 고유의 영토, 숲, 습지를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그린피스 설립자 렉스 웨일러가 직접 참여한 2013년 액션. 밴쿠버 항만 시설을 차단하여 타르 샌드 오일 운송을 저지하는 장면 © Greenpeace / Brian Caissie



종종 해파리로 오해받는 바다 속의 비닐 봉지들. 이 봉지들은 해양 동물을 질식사시켜 죽이기도 합니다 © Greenpeace / Marco Care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을 금지한 캘리포니아

지난 9월 말,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편의점과 슈퍼마켓에서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을 금지하는 첫 번째 주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일회용 비닐봉지는 일반 쓰레기뿐만 아니라 해양 쓰레기로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제리 브라운(Jerry Brown)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이번 금지 법안이 해변, 공원, 심지어 바다에서도 발견되는 수많은 비닐봉지 쓰레기를 줄일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이 법안이 발효되는 내년 7월이 되면, 월마트와 같은 대형마트에서 일회용 봉지는 모두 사라지고 종이 봉투 사용시에도 장당 최소 10센트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인도네시아 코모도 국립공원 안의 카나와섬 산호 위로 지는 석양 © Paul Hilton / Greenpeace

인류의 또 다른 터전, 바다

인간은 바다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바다는 우리가 먹는 수산물을 공급해 주고, 숨쉴 수 있는 산소를 만들며, 나아가 전 지구의 기후를 균형있게 유지시켜 줍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불법어업과 포경 등으로 바다 생태계를 엄청나게 파괴하고 있습니다.

problem

불법어업으로 텅 비어 가는 바다



서아프리카 해안에 위치한 카보베르데 섬 나라. 유럽과 동아시아의 대형 어선들이 이 지역 수산물을 씹쓸이 해감에 따라 이 나라의 전통 어업은 무너지고 있습니다 © Christian Åslund / Greenpeace

'불법어업(IUU)'은 '불법, 비보고, 비규제 어업(Illegal, Unreported, Unregulated)'으로 국제사회의 기본적 규칙인 국제법을 어기면서 하는 어업활동을 말합니다. 규정보다 물고기를 많이 잡는다거나, 잡은 양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거나, 다른 나라 바다에서 허가권 없이 물고기를 잡거나 서류를 위조하는 행위 등이 포함됩니다. 이런 불법어업으로 인해 바다 생태계의 균형은 심각히 파괴되고, 점점 비어 갑니다. 정해진 양 이상으로 잡힌 개체 수는 심각하게 줄어든고, 과도한 어업 과정에서 상어 등 멸종위기 해양 생물들이 무분별하게 잡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러한 불법어업은 자국의 자원을 착취당해도 이를 막을 힘이 부족한 아프리카 등의 저소득 국가에 더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세계적으로 불법어업으로 도둑맞은 수산자원은 약 10조 원에 달할 정도입니다.

고래가 처한 위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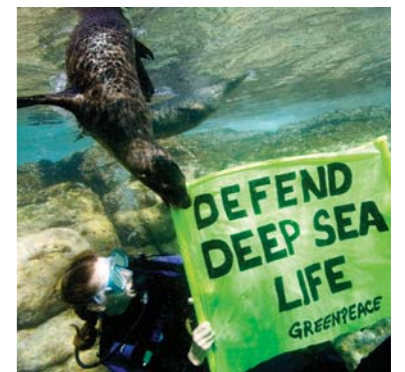


아이슬란드에서 포획된 후 가죽이 벗겨지고 있는 수염고래 © Greenpeace

지구상에서 가장 큰 종인 고래류는 19~20세기에 전 세계 바다에서 산업적 목적으로 대량 학살되었습니다. 수명이 길고 번식률이 낮은 대형 고래는 이러한 대규모 상업포경 때문에 많은 종이 멸종 위기에 처했고, 고래류의 멸종을 막으려는 전 세계인의 목소리는 1982년 국제포경위원회(WC)로 하여금 상업포경에 모라토리움(일시적 중단)을 내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86년부터 모든 대형고래류의 상업포경이 금지되었습니다. 그러나 상업포경 금지에도, 고래는 '과학포경'으로 인해 계속해서 희생되어 왔습니다. 1994년 국제포경위원회는 남극해에서 고래가 여름철에 먹이를 구하는 해역을 '고래보호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과학포경의 제도적 허점을 악용하여 한 해 1천 마리에 가까운 밍크고래를 남극해와 연안 태평양에서 잡습니다.

solution

해양보존구역 지정을 통해 해양 생태계는 보호되어야 합니다. 그린피스는 전 세계 바다의 40%를 해양보존구역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해양보존 구역은 육상의 국립공원과 비슷한 개념으로, 지정된 구역에서는 생태계 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업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현재 해양보존구역으로 보호받고 있는 바다는 전체 바다의 1%도 되지 않습니다. 한국이 불법어업국의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불법어업을 근절하고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제대로 된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해양수산부는 원양선사를 철저히 관리, 감독하여 불법어업을 규제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불법어업으로 경고 받는 일을 되풀이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린피스 활동가가 들고 있는 해양 보호 배너를 물고 있는 멕시코 바다사자 © Greenpeace / Alex Hofford

또한, 국제포경위원회는 포경 지지 국가들에 압력을 행사하고, 그 동안 무분별한 사냥을 가능케 했던 제도적 허점을 보완해야 합니다. 남극해 고래보호구역 내 포경 전면 금지를 위해 아이슬란드 정부의 포경 프로그램과 일본의 포경 산업은 종식되어야 합니다. 비살상적인 방법으로 고래의 생물학적, 생태학적 특성에 대해 연구하여, 건강한 해양 생태계 회복을 이뤄 내야 합니다.



경북공 앞에서 포경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는 그린피스 서울 사무소 활동가들
© Alex Hofford / Greenpeace

victory

과학포경 포기한 한국 정부

2012년 12월, 한국 정부는 과학포경 계획을 철회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국제포경위원회 연례회의에서 과학포경을 하겠다고 선언한 2012년 7월 이후부터 약 5개월간 그린피스 서울 사무소는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날들을 보냈습니다. 그린피스 해양 캠페이너는 여러 번의 인터뷰를 통해 과학포경이 제도적 허점을 악용한 상업포경의 다른 이름일 뿐이라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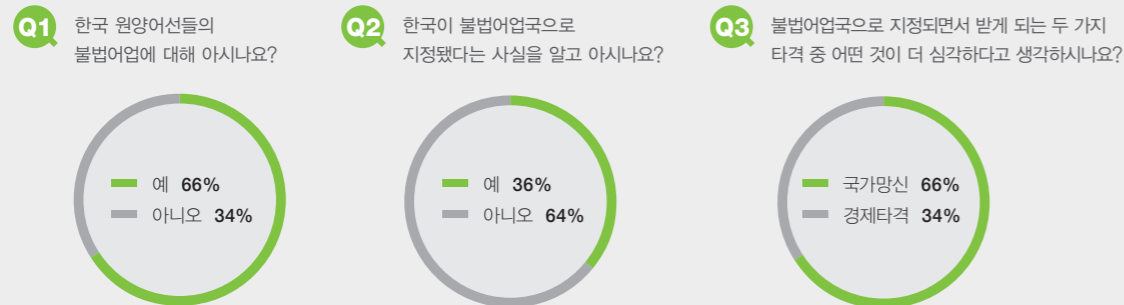
또 그린피스의 선박 에스페란자(Esperanza)호도 9월에 한국으로 초청되어, 고래를 죽이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과학연구를 할 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한 '바다수호대 투어'를 진행했습니다. 호주와 미국에서 고래를 연구하고 있는 과학자들과 함께 직접 동해 바다로 고래 탐사를 나가기도 했습니다.

이에 멈추지 않고 그린피스는 11월 초부터 한국국무총리에게 과학 포경 계획 철회를 요청하는 이메일과 트위터 메시지를 보내는 사이버 액션을 시작했습니다. 사이버 액션이 진행되었던 3주 동안, 전 세계 124개국에서 약 10만 5천 명이 한국 국무총리에게 과학포경 철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전 세계 시민들의 참여가 5만 명을 훌쩍 넘었다는 것입니다. 국내외 환경단체와 동물단체들은 과학포경 반대 캠페인을 적극 지지하며 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심지어 포경을 하고 있는 나라의 국민들도 한국 연안의 고래를 지키기 위해 국무총리에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11월 28일, 그린피스는 총리실을 방문하여 고래를 보호하려는 수많은 사람들의 목소리를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12월, 마침내 한국 정부는 과학포경 계획을 철회한 것입니다. 당시 사이버 액션은 같은 가치를 공유하는 사람들의 작은 목소리가 모이면 얼마나 큰 변화를 이뤄 낼 수 있는지 다시 한번 보여줬습니다. 24년 전, 알래스카 빙벽에 갇힌 고래를 구했던 '빅 미라클'의 이야기처럼 2012년 우리는 또 한 번 힘을 모아 고래를 구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과학포경을 포기한 결정은 올바른 선택이었습니다. 그린피스는 한국 정부가 이에 그치지 않고, 이미 흔획과 불법포획으로 위기에 빠진 한국 연안의 밍크고래 보호를 위한 대책도 마련하기를 바랍니다.

그린피스가 지난 7~8월 동안, 불법어업 반대 캠페인과 관련하여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Q3 설명 * 국가망신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최초로 불법어업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 경제타격 매년 1천억 원의 수산물에 수출금지 당하게 됩니다.

we need you

지난 10월 7일, 그린피스는 부산 감천항에서 액션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 불법어업선 인성 3호의 불법어업을 규탄하고 해양수산부에 조속한 원양수산업발전법 개혁을 촉구했습니다. 그린피스 활동가들은 불법어획물 60톤이 실려 있는 인성 3호에 "Illegal(불법어업) 그만!"이라는 메시지를 페인트로 칠했습니다. 인성 3호는 인성 7호와 함께 2013년 아르헨티나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침범하여 불법어업을 한 사실이 적발되었고, 해양수산부의 추가 조사를 위해 부산으로 귀항했습니다. 선박 소유주인 인성실업은 2009년부터 계속 불법어업으로 물의를 일으킨 기업입니다.

특히, 2011년 남극해에서 어업 제한량의 4배에 이르는 남획을 저지른 사건은 미국이 한국을 불법어업국으로 지정한 가장 큰 원인이 되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이를 비호하면서 국제사회로부터 원양업계 관리에 실패했다는 비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지난해 미국에 의해 불법어업국, 유럽연합에 의해 예비불법어업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올해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 참여를 통해 그린피스의 시민 경찰로 불법어업 반대 캠페인에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불법어업을 없애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꾸준한 관심과 공유가 필요합니다. 2년 전에 한국 정부가 과학포경을 철회한 경우에서 보듯, 시민들의 힘은 위대합니다. 불법어업에 대해 더 많은 사람들이 알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소리를 낼수록, 해양수산부와 원양선사들은 불법어업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조속히 해결책을 마련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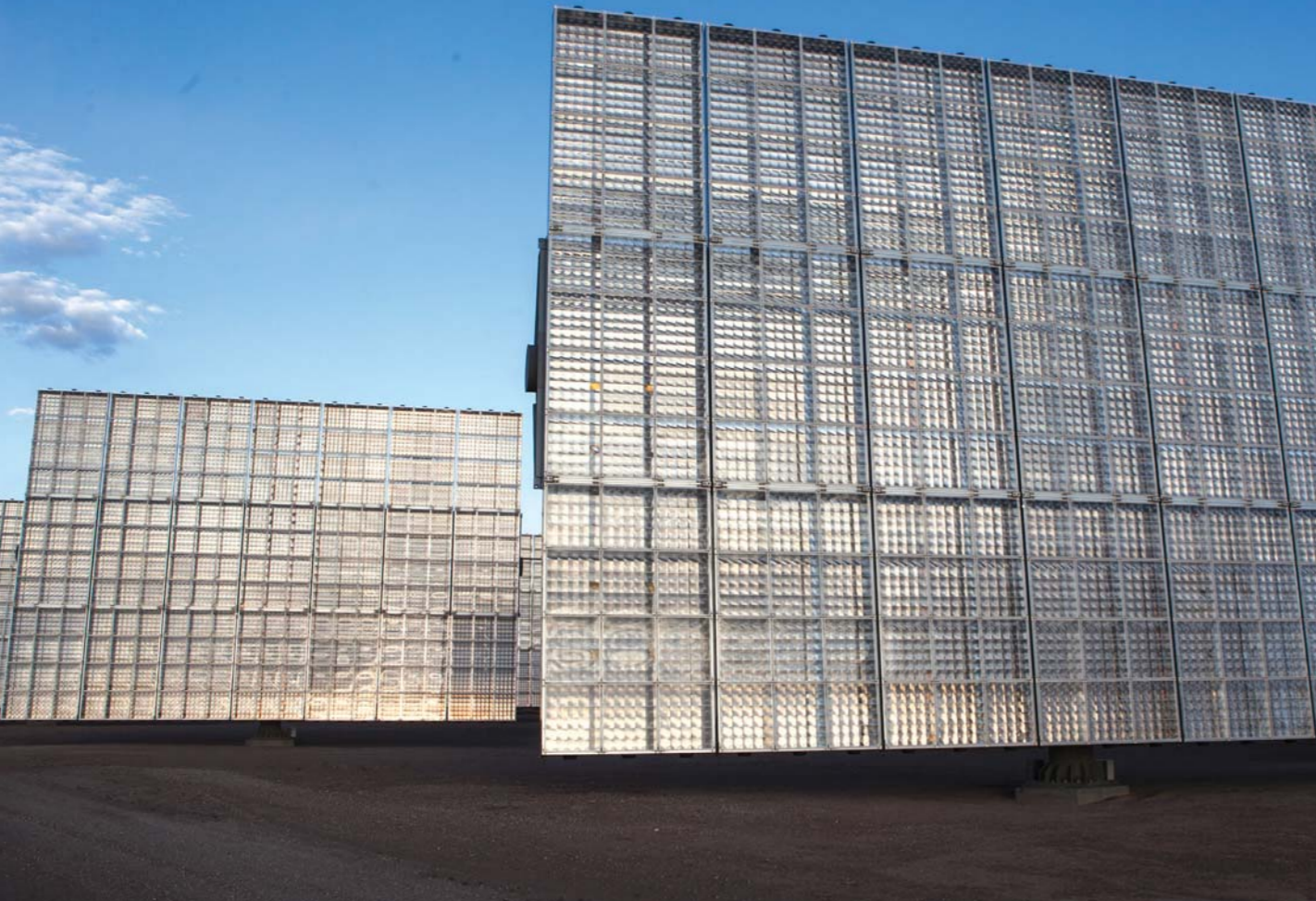
한국이 불법어업국의 오명으로부터 벗어나, 원양선진국으로 거듭나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힘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린피스의 캠페인은 여러분과 함께 할 때, 더욱 강력한 행동을 통해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부산에 입항한 인성 3호의 배에 '불법그만!'이라고 페인트칠하는 액션을 벌인 그린피스 활동가들
© Paul Hilton / Greenpeace



한국의 불법어업 재발방지책 강화를 촉구하는 그린피스의 두 번째 해양 액션
© Lim Taehoon / Greenpeace



미국 콜로라도 알라모사(Alamosa) 지역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소 © Greenpeace / Robert Meyers

원전보다는 재생가능에너지

2013년 재생가능에너지가 전 세계 총 소비 전력의 22%를 담당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2050년이면 재생가능에너지의 비중이 60% 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특히, 그 중 태양광 에너지가 주요 에너지원으로 부상해 26%를 차지할 것이라고 합니다.



일 년 동안 원자력 발전소 가동없이 지낸 일본을 축하하기 위해 케익을 준비한 그린피스 © Gordon Welters / Greenpeace

일본의 원자력 비중은 축소되고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 비중이 1998년에 최고치인 36%에서 2011년에는 18%로 줄어든 이래, 작년 1월~9월에는 전체 전력의 1.6% 만이 원자력 발전을 통해 생산되었습니다. 에너지 수급 측면에서 원자력은 반드시 필요한 에너지원이 아닙니다.

올해 9월 15일은 '일본 원전 제로' 1주년이었습니다. 작년 9월 15일, 일본은 후쿠이현에 위치한 간사이 전력의 오이 4호기(Oi-4)를 마지막으로 일본 내 모든 원전의 가동을 중단. 원전 48기가 장기 가동 중단 상태에 접어든 것입니다. 세계 3위의 원전 보유국인 일본에서 일 년 동안 원전 생산 전력이 '제로'라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큼니다. 1966년 이후, 일본은 상업용 원전이 가동되지 않은 상태에서 처음으로 여름철 최대전력 수요를 성공적으로 충족했습니다. 원전 무가동 상황에서 정전 사태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고, 세계 3위 규모의 경제가 문제없이 운영되었다는 사실도 주목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일본 국민들이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을 위해 위험한 원전을 용인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그동안 일본 정부와 전력업계가 원자력은 필수적인 에너지원이라고 주장한 것이 사실무근으로 드러난 셈입니다.

원전 하나 줄이고, 재생가능에너지로 에너지 전환



지난 10월 중순, 그린피스는 서울시가 주최한 '햇빛도시, 서울만들기 정책토론회'에 참석하여 더 많은 재생가능에너지 사용을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이현숙 그린피스 기후에너지 캠페이너는 "서울시가 생산하는 재생가능에너지를 구매할 수 있는 구매자의 범위가 확대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구매자의 범위가 확대될 경우, 외국에서처럼 한국에서도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재생가능에너지 사용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포춘(Fortune)지가 선정한 100대 기업들은 재생가능에너지 사용 확대, 에너지 효율 개선 등의 방법으로 약 1조 1,400억 원을 절약했습니다. 스위스 연방정부가 운영하는 우편 기업인 스위스포스트와 최대 통신 기업인 스위스콤도 모든 전기를 재생가능에너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재생가능에너지 구매자 확대 방안을 통해, 한국에서도 우리가 생활 속에서 사용하는 인터넷 등의 통신, 생활 제품 모두가 재생가능에너지로 생산될 날을 기대해 봅니다.



수십 명의 아이들이 영국 런던의 셸 본사 앞에서 펼친 액션 모습 © Elizabeth Dalziel / Greenpeace

북극 보호를 위한 레고의 멋진 결정

“레고 장난감에 셸 로고를 붙인다는 게 저는 화가 나요. 그러면 사람들이 셸이 참 좋은 석유회사라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사실은 아니거든요.”
 지난 7월 말, 영국 런던의 셸 본사 앞에서 커다란 블록으로 북극 동물들을 만드는 액션에 참여한 어린이가 남긴 말입니다.



레고 캠페인의 성공은 전 세계 시민 1백만 명 이상의 참여로 이뤄낸 결과입니다. 그들은 레고에 이메일을 보내서 셸과의 부적절한 파트너십을 청산할 것을 요구했고, 시민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줬습니다.

후원자 여러분, 기쁜 소식을 전해 드립니다! 지난 7월부터 시작한 '레고 캠페인'의 결과로, 레고가 북극을 파괴하는 셸(Shell)과 더 이상 파트너십을 유지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전 세계 1백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동참한 레고 캠페인은 레고에 셸과의 파트너십을 청산하고, 북극 보호에 앞장설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를 위해 그린피스는 다양한 캠페인 활동을 펼쳤습니다. 먼저, 레고 캠페인을 시작하며 선보인 바이럴 영상을 들 수 있습니다. 레고로 만든 북극이 검은 기름에 잠기는 내용을 담은 이 영상을 현재까지 약 670만 명의 사람들이 봤습니다.

한편, 레고를 가장 사랑하는 어린이들도 레고 캠페인에 동참했습니다. 수십 명의 어린이들이 영국 런던의 셸 본사 앞에서 커다란 블록으로 북극곰과 흰물떼미 등을 만들며, 레고가 북극에서 원유시추를 계획하는 셸과 파트너십을 끝낼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변화는 여러분의 참여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천혜의 북극을 지키기 위한 캠페인에 보여 주신 응원에 감사 드립니다! 레고가 셸을 떠난 것처럼, 셸이 북극을 떠날 수 있도록 그린피스는 북극 보호 캠페인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서울의 중심인 남산 꼭대기에서 북극 보호구역 지정을 촉구하는 액션을 펼치고 있는 그린피스 활동가 © Lim Taehoon / Greenpeace

지구를 살리는 북극 보호구역

북극의 또 다른 이름은 '지구의 꼭대기'입니다. 지난 9월 4일, 전 세계 그린피스 활동가들은 각국의 꼭대기라고 할 수 있는 높은 곳에 올라 북극 보호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서울 사무소의 활동가들도 남산 정상에 올라 'SAVE THE ARCTIC(북극을 지켜주세요)'이라는 배너를 펼쳤습니다. 그로부터 2주 후, 쿠미 나이두(Kumi Naidoo) 사무총장을 포함한 그린피스 대표단은 반기문 UN사무총장을 만났습니다. 이번 만남에서 그들은 북극 문제에 대해 논의하며, 북극에 보호구역이 지정되기를 바라는 6백만 명의 목소리를 전달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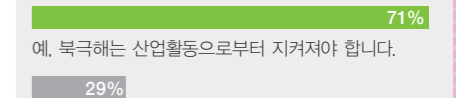


아르헨티나의 셸 주유소 앞에서 진행했던 레고 액션 모습 © Martin Katz / Greenpeace

그린피스는 지난 8월 8일부터 28일까지 한국을 포함한 30개국 30,679명을 대상으로 북극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Q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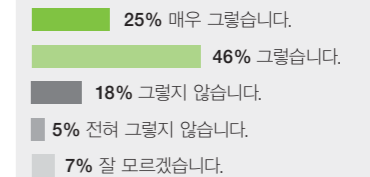
북극해는 원유시추와 기타 중공업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할까요?



아니오, 북극해는 산업활동을 위해 개방되어야 합니다.

Q2

각국 정부는 북극 보호구역을 지정하여 북극 동물 및 해양 생태계의 안식처로 보호해야 할까요?





팜유 재배로 삼림이 파괴되면서 400마리 밖에 남지 않은 수마트라 호랑이의 멸종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 Jonas Gratzner

아낌없이 주는 나무, 이제는 우리가 보호할 때입니다.

“저는 팜유 생산이 인도네시아의 삼림을 대규모로 파괴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는 숲에 의존하며 살아가는 인도네시아 사람들에게 치명적입니다. 그리고 수마트라 호랑이를 멸종 위기로 내몬 직접적인 원인이기도 하죠.”

배우 호아킨 피닉스(Joaquin Phoenix)

불법 벌목 현장 포착은 어렵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에서 벗어난 깊은 숲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달라질 것입니다. 지난 10월, 그린피스가 불법 벌목이 어떻게 벌어지는지를 세상에 폭로했습니다.



아마존 목재 산업의 중심부인 신타렘 근처 불법 벌목 지역에서 목재를 싣기 위해 대기 중인 트럭 © Otávio Almeida / Greenpeace

그린피스 활동가들은 두 달 동안 아마존 안에서 통나무를 불법 운반하는 차량에 GPS 추적기를 부착했습니다. 또한, 신타렘(Santarém) 근처 벌목꾼들과 함께 지내면서 그들의 벌목 활동을 감시했습니다. 활동가들은 벌목이 금지된 정부 소유의 공유림 깊은 곳에서 벌목꾼들이 나무를 마구 베는 장면을 촬영했고, 위성 사진을 통해 그 현장에서 얼마나 많은 벌목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확인했습니다. 그들은 경찰의 눈을 피해 밤에만 신타렘에 있는 제재소로 목재를 운반했습니다. 활동가들이 세어 본 결과, 평균 80대의 트럭이 매일 밤 목재를 옮겼습니다.

이러한 수법은 제재소들이 불법 목재를 세탁하기 위해 흔히 쓰는 속임수입니다. 그들은 가짜 벌목 단지를 만들어, 서류상 그들의 목재가 합법적인 것처럼 해외 구매자들을 속여 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브라질에서 시작되지만, 그 끝은 세계 곳곳까지 닿습니다. 전 세계 회사들은 이 제재소로부터 목재를 구매합니다. 브라질 정부가 아마존 내 벌목을 통제할 때까지, 구매자들은 구입하는 목재가 합법적이고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거둬들여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과거 오랑우탄 서식지였던 삼림 지역이 팜유 재배 구역의 접근 도로망들로 파괴된 모습 © Ulet Ifansasti / Greenpeace



마닐라 남쪽 카부야오에 소재한 프록터&갬블사 앞에서 수마트라 호랑이 복장으로 시위 중인 그린피스 필리핀 활동가 © Jimmy Domingo / Greenpeace

지속가능한 팜유에서 시작하는 삼림 보호

팜유(Palm Oil)는 일상 생활 속에서 무의식적으로 사용됩니다. 삼푸, 초콜릿, 세제 등 다양한 제품의 원료로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팜유는 다른 재료에 비해, 재배 비용은 낮고 유통기한은 깁니다. 그래서 여러 브랜드들이 팜유를 많이 사용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지나친 팜유 생산은 상상 이상의 파괴를 불러일으킵니다. 특히, 팜유를 대량으로 생산하는 인도네시아의 경우 2009~2011년 동안 삼림 파괴의 주원인이 팜유였습니다.

그린피스는 벌채와 관련된 기업들을 평가하기 위해 고탄소 보존 처리(HCS)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로레알, 네슬레 등이 이 기준을 수용해서 월마 인터내셔널(Wilmar International)과 같은 팜유 유통업체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나 KLK, IOI 등 몇몇 유통업체들은 HCS 평가를 거부했습니다. 스스로를 '지속가능한 팜유 선인 단체'라 부르는 그들은, 평가 중에도 개간 작업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린피스는 다른 NGO들과 함께 그 회사들을 압박했습니다. 지난 9월 말, 그들은 결국 평가 기간 중의 삼림 파괴 행위를 멈추는데 합의했습니다.





다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논의하는
생물다양성
협약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 포스터



그린피스 국제본부의 닐 해밀턴 박사가 북극의 현황과 북극 보호구역에 대해 발표하고 있는 모습

지난 9월 29일부터 10월 17일까지 강원도 평창에서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가 열렸습니다. 생물다양성협약(CBD)은 세계 3대 환경 협약 중 하나로, 생물다양성 손실에 대한 범지구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1992년 UN 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당사국 총회에서 발효된 나고야 의정서는 유전자원을 이용할 때 발생하는 이익을 공정하게 공유하기 위한 국제규범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유전자원의 이익이 공유되지 않고 유출된 사례로는 구상나무가 있습니다. 한라산과 지리산의 특산식물인 구상나무는 1904년에 유럽으로 반출되어 현재 세계적인 크리스마스 트리로 사용되는데, 우리나라에 역수입되고 있습니다.

그린피스는 이번 총회 기간 동안 북극 보호구역에 대한 부대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지난 9월에 반기문 UN사무총장을 만나 북극 문제를 직접 논의했던, 그린피스 국제본부의 닐 해밀턴(Neil Hamilton) 박사는 북극의 심각한 현황을 발표하며 북극 보호구역 지정이 시급함을 강조했습니다. 핀란드 환경부 대표로 참석한 헤나 하팔라(Henna Haapala)도 북극 보호구역 지정에 동의했습니다. 핀란드는 현재 유일하게 북극 보호구역 지정을 정책으로 채택한 나라인데, 내년 4월에 정권이 바뀐다면 그 정책이 바뀔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스웨덴 정부의 스테판 다니엘손(Staffan Danielsson)도 북극 주변 국가들의 미래 지향적인 행동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북극 보호구역 지정을 통해, 북극 환경과 생태계를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서식지 파괴, 기후변화, 남획 등으로 생물다양성이 크게 훼손되고 있습니다. OECD 2050 환경전망보고서에 의하면, 전 세계 생물다양성은 1970년부터 2010년까지 11%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이는 북극에도 해당합니다. 미국 지질연구소는 지금의 지구 온난화가 계속된다면 북극곰의 3분의 2는 2050년이 되기 전에 사라질 것이라고 합니다. 생물다양성의 감소는 인류의 크나큰 자원을 잃는 것이며, 나아가 생태계의 한 종인 인류의 생존에도 위협 요인이 됩니다. 현재 우리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해서라도 생물다양성 복원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후원자님! 연말정산 기부금 공제 꼭 챙기세요~



홈페이지
(www.greenpeace.org/korea)
후원하기 클릭



후원정보
확인



나의 회원정보
확인



기부금 영수증
확인

기부금 공제 한도

1

근로소득금액의 30%
(주택자금, 신용카드 등의 항목과 합산해 2,5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가능)
* 그린피스는 지정 기부금 단체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기부금 공제 대상

2

기부금 영수증은 기본적으로 후원자님 본인 명의로 발급되며, 기본공제 대상자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가 지출한 기부금도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기부금 공제 대상 확인 및 변경

3

그린피스 홈페이지 → 후원하기 → 후원정보 확인 → 나의 회원정보
→ 기부금 영수증: 기부자 주민번호 확인 및 변경

* 후원자 본인이 아닌 제3자의 주민번호로도 등록 가능합니다.

- + 그린피스는 후원자님의 기부금 공제를 위해 기본적으로 국세청에 기부금 내역을 신고하고 있습니다.
- + 그 외의 용도로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들은 그린피스 홈페이지에서 직접 영수증을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를 이용하세요.
- + 그린피스는 지구의 환경을 지키기 위해 연말정산 기부금 영수증을 우편 발송하지 않습니다. 그린피스 홈페이지 또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득이한 이유로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후원자님에 한해서는 전화(02-3144-1997) 또는 이메일(supporter.kr@greenpeace.org)로 별도 우편발송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리 곳곳을 환히 밝히는 그린피스의 얼굴,
거리모금가

거리모금가



그린피스는 전 세계에서 최초로 거리모금 캠페인을 시작한 단체입니다.
거리모금가는 시민들과 그린피스 캠페인을 잇는
최전선에서 그린피스가 시민의 힘으로 환경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서울 사무소의 거리모금가들은 한 달 동안 약 1만 명의 시민들을 만나며,
매일 10여 곳의 장소에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7월에 신촌현역에서 만난 시민분이 제 설명을 찬찬히 듣고 후원도 해주셨는데, 마지막에 잘 부탁드립니다라는 말을 하셨어요. 사실, 그 말은 제가 후원자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인데 거꾸로 제가 들은 거예요. 그분이 저를 통해 그린피스를 지지한다는 느낌을 받아 남달랐어요.”

매주 월요일 아침, 서울 사무소에는 활기찬 기운이 가득합니다. 거리모금가들이 한데 모여, 이번 주에 만날 시민들을 위해 준비하기 때문입니다. 거리모금가들은 '캠페인 업데이트' 시간에 그린피스의 캠페인과 관련된 내용을 발표하고, 토론합니다. 매일 그린피스의 얼굴로 시민들을 마주하여 다양한 질문을 받는 만큼, 캠페인에 대해 공부하는 거리모금가들의 모습은 누구보다 진지하고 열정적입니다.

정오가 되기 전에 거리모금가들은 그린피스 부스를 설치하고, 본격적인 거리모금 활동을 시작합니다. “덕수궁 시립미술관에서 만난 후원자가 기억에 남아요. 어린 딸의 꿈을 위해 어머니가 흔쾌히 후원에 함께 하셨거든요.” “경복궁 근처였어요. 그곳을 청소하시는 아주머니가 현금으로 후원하고 싶는데, 부스에서는 정기후원만 받고 있다고 말씀드리니 못해서 미안하다며 다음에 꼭 하겠다고 하셨어요.” 황정훈 거리모금가와 손병혁 거리모금가가 얘기하는 에피소드처럼, 시민들로부터 받는 웅글한 감동은 거리모금의 묘미 중 하나입니다.

“환경이라는 쉽지 않은 주제로 시민들을 설득하는 것이 제게는 도전이고, 그래서 매력적이예요.”라는 장보라 거리모금가의 말처럼, 시민들을 직접 만나 후원까지 이어지는 소통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 일을 열정으로 해내는 거리모금가들 덕분에 그린피스가 지금까지 지구를 위해 일할 수 있었습니다.

그린피스는 활동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나 기업이 아닌, 오직 개인 후원자와 독립 재단의 기부만 받습니다. 그 기부의 대부분은 거리모금가로부터 시작합니다. 매일 새로운 후원자를 만날 기대와 설렘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넘치는 에너지로 시민들과 소통하는 거리모금가가 있어서 그린피스는 든든합니다.





자녀의 이름으로 후원해서 아이를 통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 싶다는 부모님, 유학생 신분으로 한국에서 좋은 추억을 쌓고 싶다고 후원한 외국인. 이렇게 마음을 담아 후원하는 모든 분들이 그린피스를 만드는 주역들입니다. 이번에 만나 본 김아롬새미 작가도 그 주인공 중 한 분입니다.



“저는 올해 3월부터 그린피스를 후원하고 있어요.” 김아롬새미 작가는 동작역 근처의 거리 모금 부스에서 그린피스를 처음 만난 후 정기후원자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올해 여름에 그녀가 참여한 ‘2014 아시아프(ASYAAF: Asian Student and Young Artists Art Festival)’에서 전시했던 작품이 모두 팔리면서, 그 수익금을 그린피스에 또 기부했습니다. 아시아프는 공모를 통해 아시아 지역의 만 30세 이하 젊은 작가를 선발하여 그들의 작품을 전시하는 아트 페스티벌입니다. 수리부엉이, 황제앵귤, 하프물범 등 멸종 위기종을 담은 전시 작품 8점이 개막 첫 주에 다 팔리면서, 그녀는 ‘완판 작가’로 신문 기사에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관객에게 그림으로 멸종 위기 동물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그 수익금을 기부하는 것으로 구매자와 멸종 위기 동물의 ‘연결고리’를 만들고 싶었어요.” 그녀가 만들고자 하는 그 연결고리에 그린피스가 함께 있단니, 매우 고마운 일입니다.



후원자 김아롬새미 작가의 2014 아시아프(ASYAAF) 전시 작품 '아무르 표범'

“기부는 그림 주제와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곳에 보내는데요. 작년 필리핀 태풍의 피해 지역이었던 타클로반(Taclaban city)의 어린이들이 그린 그림을 판매하고 나서는, 그 지역의 구호단체에 기금을 보냈어요. 그리고 사라져가는 동물을 위해서는 그린피스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했어요. 특히, 보통 사람들에게도 환경 문제에 경각심을 갖게 하는 그린피스의 활동이 마음에 들어요. 좋은 기회가 닳아서 인연을 맺게 되었다고 생각해요.” 그녀가 그린 피스에 꾸준히 후원하는 이유를 물었을 때, 돌아온 대답이었습니다. 그녀는 평소 ‘소외된 것’에 대한 관심이 많아, 빈민층이나 사라져가는 동물에 대한 그림을 많이 그린다고 합니다.

“자연을 향해 열려 있고, 행동하는 후원자들은 모두가 아름답다”는 그녀의 말은 찡하게 다가옵니다. 그린피스에는 김아롬새미 작가와 같이 아름다운 후원자들이 많습니다. 그린피스의 후원자들의 아름다운 정성에 부끄럽지 않은 캠페인 활동을 이어 나가겠습니다.

그린피스의 첫 번째 후원자의 밤



11월의 어느 금요일 저녁, 한국 후원자들을 위한 제1회 그린피스 ‘후원자의 밤’이 개최되었습니다. 서울 사무소의 직원들이 처음으로 후원자들 앞에서 그간의 활동을 소개하는 자리인 만큼, 설레고 떨리는 시간이었습니다.

본 행사에 앞서, 후원자들에게 서울 사무소의 이곳저곳을 소개해 드리며 저희가 어떻게 근무하고 있는지 보여 드렸습니다. 이번 행사에 제일 먼저 도착한 한세미 후원자는 사무실 투어를 마친 후, “5월부터 그린피스의 후원자가 되었는데, 너무 떨려서 제대로 못봤어요.”라며 들뜬 기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북극 보호를 위해 활동했던 활동가 30명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 ‘Black Ice’를 상영한 후, 그린피스의 액션과 캠페인을 설명하는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인 최서윤 후원자는 “영화가 제일 기억에 남아요.”라고 수줍게 말했습니다. 함께 온 아버지 최형우님도 “환경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활동가들을 봐서 좋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캠페이너와의 대화 시간에는 다양한 질문을 통해 궁금증을 표현했던 후원자 여러분의 그린피스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재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 기부금이 잘 쓰이고 있는 것 같아 좋았어요.” 박새울 후원자의 소감처럼, 그린피스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그린피스 후원이 자랑과 보람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린피스의 첫 번째 후원자의 밤에 참석해 주신 후원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린피스 서울 사무소 새해 인사



그린피스 서울 사무소는 후원자 여러분과 함께 할 2015년을 기대합니다. 그동안 그린피스 캠페인을 응원하고 지지해 주신 여러분의 애정에 감사드리며, 내년에도 깨끗하고 안전한 지구를 위한 즐거운 여정에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건강과 웃음이 넘치는 새해 되세요.

GREENPEACE님.

난생처음 해보는 후원입니다.

단순히 환경보호·동물보호 관련 구호만 보내게되었습니다.

구체적인 활동과 캠페인 등을 더 알고 싶습니다.

앞으로 작은관심이 일찍 끝내 않도록 관심 꼭 아끼겠습니다.

아주 사소하게 시작했지만 큰 변화가 제 스스로에게 온 것 같아
부끄럽습니다.

그린피스와 더욱 발전적인 영향력있기를 바라며,

더 멋진 노력하겠습니다.

좋은일 함께 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후원자 김혜나님이 그린피스로 보내 주신 "따뜻한 손편지"

GREENPEACE

그린피스 서울 사무소

서울시 마포구 와우산로 21길 20-11 2층

☎ 02-3144-1997 ✉ supporter.kr@greenpeace.org 🏠 www.greenpeace.org/korea

📘 www.facebook.com/greenpeacekorea 📺 @greenpeacekorea



이 제작물의 표지는 친환경용지, 내지는 100% 재생용지로 제작되었으며, 공기를 잉크로 인쇄되었습니다.

국제 환경단체 그린피스는 독립적인 비영리 캠페인 단체로, 지구 환경 보호와 평화를 이루고자 창의적이고 비폭력적인 방식으로 직접 행동합니다. 그린피스는 환경을 파괴하는 범죄를 폭로하고, 우리와 미래 세대를 보호할 의무를 저버린 정부나 기업에 변화를 촉구합니다. 그린피스의 가장 중요한 가치 중 하나는 '독립성'입니다. 그린피스가 언제나 어떤 기업이나 정부로부터도 독립적으로 지구 환경 파괴에 대해 올 수 있었던 힘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린피스를 후원하고 지지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